새차 약속 어기고 노후 버스 택시 기사가 일일 대리운전

순천 효천고 수학여행 버스 참사 '어처구니없는 人災'

지난 7일 제주에서 발생한 순천 효천고 수학여행 버스 전복 사고는 출고된 지 무려 9년이나 지난 노후 버스를 버스 운전사가 아닌 개인택시 운전사가 운전하다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밝혀졌다.

효천고와 수학여행 계약을 맺은 관광회사는 '신차 및 경력 운전사'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수학여행 과정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번 사고 원인으로 버스 브레이크 파열과 운전 미숙이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사고 버스는 9년된 노후 버스= 효천고는 지난 4월 수학여행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을 실시해 순천에 소재한 S관광과 계약을 맺었다. 당시 학교측은 S관광에 '출고된지 3~5년 이내의 신차와 운전경력 5년 이상의 버스 운전사'라는 조건을 붙이고 수학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S관광과 도급계약을 맺은 제주 소재 K관광은 현실적으로 새차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수학여행에 노후 버스를 내놓았으며, 이같은 사실은 학교측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효천고 수학여행에 제공된 버스는 2000년, 2001년식 등 대부분 출고된 지 7~8년이 지난 차량들이며, 심지어 11년이 지난 1997년식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사고차량인 제주79바 XX15 버스의 경우 출고된지 9년이 지난 1999년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효천고 관계자는 "계약 조건대로 연식이 얼마되지 않는 버스를 요구했으나 관광회사로부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운전사가 버스 대리 운전=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버스를 운전한 운전사는 개인택시 운전사 박모(45)씨로 밝혀졌다. 박씨는 관광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날 하루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조건에 명시된 '5년 이상 경력자'는 휴지조각이었다.

경찰은 버스 운전에 미숙한 박씨가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아닌 일반 브레이크를 썼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도 운전사가 "버스 브레이크가 터졌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운전사 박씨가 사망한 상태여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전벨트 착용 지도 없어=사고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인솔 교사의 부주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안전벨트만 착용했어도 사상자를 상당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효천고가 올 초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여행지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학생들이 일본을 선호했으나 학교측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제주도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지난 7일 제주 1100도로에서 일어난 수학여행 버스 전복사고로 숨진 순천 효천고 1년 최대현, 김성재군의 시신이 8일 오후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도착하자 최군의 어머니 등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오열… 통곡… 학생 시신 순천 성가롤로병원 안치

제주도 수학여행 도중 버스 전복사고로 숨진 순천 효천고등학교 최대현(16), 김성재(16)군의 시신이 8일 오후 순천 성가롤로병원 장례예식장에 안치됐다. 이날 오후 3시 제주공항을 출발한 두 학생의 시신은 광주공항을 거쳐 오후 5시 30분께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도착했다.

두 대의 리무진 차량에 나눠 가족과 함께 도착한 시신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효천고 재학생들에 의해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두 학생들의 유족들은 시신이 도착한 이후 목놓아 슬픔을 토해내며 오열했다. 특히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최군과 김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어루만지며 통곡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의 오열도 이어져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장례식장을 찾은 효천고 관계자는 "순천 성가롤로병원과 학교 체육관에 빈소를 마련했고 장례식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숨진 학생의 부모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학여행을 떠난 모든 학생들은 국내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상문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팀=지광현기자 light64@

격리치료 거부 50대 자살

알코올 중독증세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격리치료를 거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C정신병원 3층 보호실에서 격리 치료중이던 김모(52·광주시 남구)씨가 입고 있던 속옷을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숨졌다. 생활보호대상자인 김씨는 외출을 했던 이날도 만취상태로 돌아와 병원 관계자가 격리치료실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안현주기자 ahj@

美 쇠고기 반대 확산

광주·전남 시민단체 비상시국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들도 대규모 촛불집회 등 본격적인 수입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특별대책위'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광주·전남지역 19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광주 YMCA에서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정운천 농림부 장관, 민동석 협상대표 파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시국회의를 제안한 '광우병 대책위' 이희한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어른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 참석자들은 또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수입반대 촛불집회에도 힘을 보태자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 참석 단체들은 오는 10일, 16일, 23일 광주에서 대대적으로 촛불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네티즌과도 연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광주·전남진보연대와 전남대총학생회가 8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전남대 후문에서 촛불 집회를 가진 것을 비롯, 구례·고흥·목포·해남 등에서도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열렸다.

한편 참여연대 등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는 9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 촛불집회에는 3만~4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촛불집회가 될 전망이다. /안현주기자 ahj@

위장 결혼 中 여성 등 무더기 적발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여성과 알선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해준 한국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뒤 한국에 입국한 진모(여·33)씨 등 중국인 여성 2명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중국인 여성들과 위장결혼해 준 한국인 남성 명모(50)씨와 중국여성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005년 10월 중국 길림성에서 명씨와 위장결혼을 한 뒤 두달 후 한국에 입국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진씨의 입국을 알선한 한국인 브로커 박모(56)씨는 중국인 여성들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1인당 8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한국 남성들에게는 200만원 가량의 수고비와 공짜 중국여행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50여 차례에 걸친 위장결혼을 통해 모두 6억원 가량을 챙겼으며, 2년 전에도 구속됐었다.

경찰은 위장결혼으로 불법 입국한 중국인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선 감척사업 서류 위조 보조금 편취 33명 입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일)은 8일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사업(감척사업)에 참여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어민 김모(50)씨 등 33명을 사기 및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감척사업은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옛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2005년도부터 실시해왔었다.

서해해양청에 따르면 감척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최근 1년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되어야 하지만, 허위로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천만~6천여만원까지의 보조금을 받는 등 총 7억9천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것. /목포=이상휴기자 lsh@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시공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효도 못해…" 알몸 자살 소동

쌍나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20대가 '어버이날' 부모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려다 등산객과 119구조대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

○…8일 광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6분께 광주시 무등산 세인봉 암벽 위에서 정모(27·광주시 동구)씨가 알몸상태로 투신자살을 시도하려던 것을 등산객 A씨가 발견, 119에 신고를 했다는 것.

○…공무원시험 준비생인 정씨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다. 부모님을 이해시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등산객 A씨가 몸싸움까지 벌이며 그를 만류했다고.

○…119 구조대가 도착한 이후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던 정씨는 결국 구조대원과 A씨의 집요한 설득에 자살을 포기하고 하산.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